

다 놔버리고 오로지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21면에서 계속

다. 스스로 나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피해서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 끌어줄어도 내가 귀찮다고 '에이, 나나 먹으면 됐지.' 그리고 그냥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날아다니는 새도, '음메 음메' 하고 우는 소도 심중 깊이 마음으로 말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운문 스님도 마음을 전달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를, 우리가 신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의 잠깐 하지 말고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놔둘 때, 주인공에 다 모든 것을 놔둘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된 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리다 저리다 공부하는 것은 틀려버렸고, 또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빌어가지고 싸움만 남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통째로 떼어내십시오.

한 가지 끝으로 얘기해드릴 것은 우리는 지금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을 돌로 보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나로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깨달은 대로 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비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그런 무명을 죽이고 웃만 벗겼지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이 아니라 자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욕을 한마디 해놓고선 그 사람 마음의 근본을 건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남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습이, 여러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습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급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닥칠 때에 한번 찢어보면 영락없이 예전의 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은 법이 돼서 한번, 어저께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체 만법에 의해서 마음의 보배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드라면 큰 것을 쓰려면 큰 코드 하나에,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모터를 돌려겠다' 하고 코드를 켜면

모터가 돌아지고, '난 냄비에 찌개를 끓여겠다' 하고 코드를 켜면 찌개가 끓여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섭리나 이 세계의 섭리나 나라의 섭리나 가정의 섭리나 복잡한 몸의 섭리나 모두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여러 분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여하니 부처니라'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색에 꼬달리지, 욕심에 꼬달리지, 말에 꼬달리지, 나에 꼬달리지 모두 꼬달리다 보니깐 아예 그냥 휩쓸듯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법이고 정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을 막힌다고 다 놔버려야 합니다. 놔버리고서 자기가 한생각을, 한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하게 생각하면서 무심히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편리하게 살아나기 뜻이 큰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스스로의 자기 한생각에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내 안에다가 굴려놓으십시오!”

그저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 좋게 막 내던질 때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을 좋게 내주기 위해서 한번 찢어볼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번 말을 꼭 찢어서 남의 부위를 흘려 뒹겨놓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어렸을 때, 하는 것도 한 번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한마음의 도리에 큰 공덕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속이 뒹겨지지 않으면서도 속이 뒹겨지지 남한테 말을 해주는 거는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뒹겨지거나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가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속을 뒹겨놓는 거는 그런 것,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비입니다.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도 굴러가고 저렇게도 굴러가고 두루뭉술리 같아. 뭐 귀찮고 밟는 게 없어.' 이라고 욕을 한다 해도 나는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는 저 사람은 못났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수시로 이런 말 하죠. 부처님의 뜻이란 게를 건지려면 개가 되고, 별레를 건지려면 벌레로 들어가야 하고, 부처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려면 부처 자리에 같이 하고, 보살이 되려면 한 발, 한 계단 내려두고 보살이 돼야 하고, 여러분 집에 가려면 여러분이 나하고 동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이 잘나고 빛이 부처고 빛이 증생이고 그런 거 다 모릅니다.

엇저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져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요. 그 최씨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항상 편지를 하면서 자기네 가정을 지켜나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시겠습니까? 모든 데에 꼬달리지 않고 세상의 일체 만법을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보배가 바로 각자에게 있다는 걸 실감하고 알 때 비로소 '그거, 그레요!', '그레요' 하고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 갈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전달해서 거기 받는 사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쪽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벌써 통일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격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겠습니까? 순간 할나 아니니까?

그런데 3일 만에 300불을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끝없는 예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복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을 받고 내가 행복을 하는 건데, 행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행복을 하는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삼(三十二相이 구족(俱足)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범인이든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걸 다 놔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열어서보고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큰 경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하거나, '이건 모두가 착이요.' 예전에 그렇게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지 억지로 들어지나오?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쓸지나오?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의 백지의 마음을 바라 이겁니다. 응?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 글씨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글씨 써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가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그 뜻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닦지는 대로 스스로 코드를 켜고 스스로 코드를 빼고, 우주법계에 스스로 천체 통신력으로 이해해주고, 그대로 통신이 되면 가져 없이 그대로 정돈해주고 책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도리를 우리는 능히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저 스님은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의 좋은 말씀은 안 해주시고 만날 저렇게 쓸데없는 말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서 지금 쓸데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혼이 얼마 동안 있다가 윤회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그저 몸 떨어지지마자 다시 새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내 몸 없어도 수만 개가 바로 내 몸이 아님이 없고, 몸 하나가 수만 개의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이 내가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체가 없기 때문에 한생각 내면 그냥 그 게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도리를 어떻게라도 알아서 커버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병이 아무리 위독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는 사람이 커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불되고 애를 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묘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도 애착이 없이 남의 걱정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아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의 걱정이 있걸랑은 내 마음에다가 맡겨놓으시라는 얘기가 걱정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안에다가 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맡겨 놓으신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것보다 백백쟁이 천공쟁이 아마 좋은 결과를, 써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도 좀 더 사는 데에 괴로움이 없이 사시라고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때로는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오다가도 눈물이 나는데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마음에서 말입니다. 남은 이 소리를 했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눈물이 날 뿐이지요. 그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이 앓아눕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무참해서 그 사람은 비켜놓고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하게 돼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실부모한 사람들도 많은데, 조실부모했다 하면 고통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볼 때요.

그러나 모든 게 우리 그 마음들은 변치 않고 있으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몸이 없으면 바로 자식이 그분이지 즉, 과거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마음을 전달해서 나오고 생기고 이렇게 됐다 가리않았다 하는 이 인생살이가 다 엇저저께가 따로 없고 내일이 따로 없고 오늘이 따로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서 마쳐겠습니다. 86년 6월 15일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7년 6월23~6월29일 (6박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크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 7일 중 일부기간 참여 가능)
 - 시작 날 - 6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6월 29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 dhamma53@hanmail.net)

팔정도 수행의 올바른 길인 **서울 법기선원**
불교 대학 수강생 모집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제1 서울법기선원 불교대학을 개강합니다. 본 불교대학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이 서린 가르침인 아누타라삼마삼보리에 이르는 법문을 요약하고, 불교에 존재하는 수행방법을 비교분석하고, 팔정도 수행을 올바르게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개 강 :

주간반 : 2007년 6월 12일(화) ~ 8월 14일(화) 오전 10:00-11:30
야간반 : 2007년 6월 13일(수) ~ 8월 15일(수) 저녁 7:30 - 9:00

대 상 :

1. 불교를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
2. 팔정도 수행을 정확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
3. 불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
4. 불교를 알려드리고 싶은 이웃이나 친지 분

회향 : 2007년 8월 19일 서울정거점회
수강료 : 총 70,000원 (교재비 포함, 학생 50,000원)
접수 및 문의 : 서울법기선원 (02-854-1848) www.bubkisa.or.kr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모 연 문

귀의삼보 하옵고, 가람수호와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시는 크스님께 육체 보존하시고 건강하시어 성불하시길 합장 삼배 올리며 기도수행정진으로 불연 깊은 불자님들께 합장 인사 올립니다.

소송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신도시에서 신흥포교를 시작한지 1년여 되는 보취이라 하옵니다.

찾아 뵈고 합장 삼배 올리고 말씀드려야 올은 줄 아오나 모연문으로써 대신함을 대자비심으로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린이 청소년 포교만 20여년 해오며 정진하다 불모지인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문을 닫게 된 포교원 맡아 왔으나 소송의 기도원력이 부족한 것인지 워낙 착박한 황무지이고 한집건너 타종교 일색인 이곳에 불교 어린이집 유치원 하나없고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각이 못해 모연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짐새와 월 들어가는 공과금 등 운영비 등과 교통사고까지 나서 휴유중으로 병원치료에 힘어 들어 크스님과 신심깊은 불자여러분께 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법도량하나 만들기는 힘들어도 없어지기는 쉽습니다. 포교원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기도정진으로 전법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심시일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대해를 이루듯이 크스님 그리고 불자님들께서 조그마한 정성과 마음을 주신다면 열심포교 정진하여 전법도량 하겠습니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공든 탑이 되듯이 크스님의 가르침과 불자님들의 깊은 신심이 격려를 기다리면서 뜻 깊은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면서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51년 5월 25일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85-16 ☎ 031)998-8700
대한불교조계종 동산포교원 寶輝 合掌

■ 크스님과 불자님의 원력으로 이곳에도 부처님 재비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국민은행 248201-04-027171 동산사포교원
농협 163-01-441644 동산사포교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텅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교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